

목포시-시립교향악단, 노동기본권 놓고 충돌

시향 “연차휴가 못쉬고 근로조건 일방적 변경”

시 “연습거부 등 정기공연 차질” 강경대응 방침

목포시립교향악단이 노동기본법 보장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기공연 차질을 우려한 목포시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목포시는 21일 “시립교향악단 노동자들의 연습거부와 비노조원 연습 방해, 노조가입 협박 등으로 정기공연에 차질이 불가피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목포시립예술훈단회는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지휘자 제임 반대, 시민문화권리 보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수년간 기본적인 근로기

준법을 지켜지지 않은 채 노동기본권이 박탈돼 왔다”면서 “연차휴가가 지체되지 않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하고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조원들의 주장에 대해 목포시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시립교향악단의 임금은 지난 2005년 50만원 이하였던 급여를 2013년 현재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 평균 150여만 원으로 300% 인상됐다.

또 연차휴가는 지휘자 재량으로 파트별 휴무와 공연 대체 휴무 등 공휴

일을 제외한 개인별 연가일수는 사실상 연간 50여 일이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근로조건의 일방 변경과 관련해서는 5개 시립예술훈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시립교향악단만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난

11일부터 당초 복무규정대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후생복지 측면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휘자 문제 또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정기공연을 앞 둔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협화음으로 지역적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근무위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립교향악단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목포시가 져야한다”면서 “전문성 없는 관여와 간섭,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의한 독선적 운영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무등산서 해조류박람회 홍보

완도고 학생 20여명이 최근 국립공원 지정 이후 전국 각지의 등산 애호가들이 찾고 있는 무등산 등산로 입구에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완도고 동아리 완전체(완도를 전체 새롭게 체인지 하자) 회원들이 이들 학생들은 등산객들에게 해조류박람회 홍보물을 배부하고 완도 특산물인 전복도 소개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신안, 행정제도 개선 경진 국무총리상

신안군은 21일 “최근 201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안군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정 부총리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된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에서 지난 1년간 추진된 제도개선 우수사례 360건 중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13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군은 행정제도개선 사례로 ‘예술로 색칠하는 천사(1004)섬의 새로운 변화’를 제출했다. 이 사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전문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섬&아트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문화예술의 불

모진인 신안의 여러 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예술협력사업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섬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트캠프와 공연, 군 직원과 한예중 간 상호방문 및 문화예술교육, 한예중 재학생 및 교수들의 예술답사와 창작캠프 등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기자 노트

이런 행사 꼭 해야 하나

완도군에서 최근 열린 행사를 둘러싸고 말이 많다. 읍민의 날을 맞아 화합의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치러진 것은 이달 초, 하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도 완도지역을 휘감고 있다.

이 행사의 취지는 한 해 동안 생업에 힘들었던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 완도군수, 군의회의장, 군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그러한 의미 있는 행사였기 때문이다.

본 행사에 앞서 농악놀이, 색소폰 연주 등 사전 공연이 벌어졌던 때도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군수와 군의원, 기관단체장, 지역단체 대표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면서 행사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소개와 인사말이 지루해지는지 참석한 1500여명의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행사장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주최 측은 자리가 좁아 참석자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해 한 자리라도 앉지 못했던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표시했다. 주민이 아니라 내외귀빈에만 신경을 쓴 주최 측의

‘의전 중시’가 그 원인이었다.

행사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 추진위원장을 현직 군의원이 맡고, 완도군은 이 위원장 명의의 통장에 행사비 4000만원을 입금했으며, 이외에도 각 기관·단체에서 협찬금 명목으로 10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금액 가운데 동원된 주민들의 점심비용이라며 34곳의 각 마을에 30만원씩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읍장은 “과 같은 예산을 지역 정치인 얼굴 알리기 위해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격려했다.



정은조 서부취재본부장

향후 행사비 예산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완도는 오는 2015년 지역에서 최초로 국제 이벤트, 즉 완도해조류박람회를 준비중이다. 군발전의 기폭제가 될 이 국제이벤트를 앞두고 주민들의 단합은 필수적이다. 내외귀빈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통해 군의 내부 역량을 높이는 것이 바로 박람회 성공개회의 지름길임을 완도지역 정치인들이 깨닫기를 기대한다.

/ejchung@kwangju.co.kr

진도 고군~임회 도로 기공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중인 진도군 고군~임회 간 도로 개설 공사 기공식이 20일 열렸다.

국비 23억원 등 총 47억원을 투입, 오는 2015년 12월 완공 예정인 개발촉진지구 내 고군~임회 간 도로개설 공사는 1.4 km 2차선 규모로 자전거 도로와 함께 생태 이동통로 등을 갖춘 예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새 얼굴

“핵심역량 키워 타 대학과 차별화”

박기중 목포과학대 총장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으로 핵심역량을 키워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고 특성화해 학생과 기업이라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목포과학대학교 제11대 박기중(61)총장이 취임했다.

박 총장은 “그 동안 공직과 국제사회에서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심본 발휘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힘을 합하여 목포과학대학이

직 면 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총장은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22회 행정고시 합격, 국무총리 기획조정실과 외교부 본부 대사,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목포=김준식기자 kjs0533@



전북

국내 최고·최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道·국립문화재연구원 26일 착수식...2016년까지 마무리

국내 최고(最古) 최대(最大)의 석탑인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이 본래 모습으로 복원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북도는 26일 오후 1시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에서 ‘미륵사지 석탑 복원 착수식’을 연다.

착수식은 미륵사지 석탑이 일제강점기인 1915년 콘크리트 보수이

후 98년 만에 ‘재모습 찾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미륵사지 석탑은 1915년 개축되면서 전면 전체와 남쪽 북쪽면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당시 일제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시멘트를 덧씌웠다. 원래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너진 후엔 6층까지만 남았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2009년 석탑 1층 심주석에서 사리

장엄(舍利莊嚴)이 발견되면서 구체적인 건립시기(639년)와 미륵사 장건의 성격과 발원자가 밝혀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북도는 2010년까지 석탑의 해체와 발굴 조사를 완료했고 복원공사는 2016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착수식은 전통무용과 무용행차 재현 공연을 시작으로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 계획보고와 심초석 놓기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북도, 익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개막식이 열린다.

특별전에선 2009년 발견된 사리장엄을 비롯해 기반부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진단 유물이 선보인다. 금제불영기, 금제사리내, 외호, 은제관식 등 사리장엄과 진단구 9900여점이 전시된다.

특별전은 27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이어진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사료작물 직불금 도입 농민 ‘불멘소리’

기존 생산 장려금보다 절반 이하로 깎여

지역 농민들이 올해부터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 밭 직불금에 대해 불멘소리를 하고 있다. ‘공돈’이 생기는 데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직불금이 기존의 생산장려금보다 적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와 정읍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조사 생산량을 늘리고자 올해부터 밭 직불금 지급 대상을 겨울철 사료작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축 사료를 쓰려고 청보리와 호밀 등을 심는 농가는 ha당 20만원씩 최고 80만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직불금이 종전에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농가에 지급해온 생산장려금보다 적다는 데 있다.

전북지역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사업으로 사료작물 생산

량 1kg에 20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1ha에 보통 20t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가가 받는 장려금은 직불금의 배인 ha당 40만원 인원에 달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직불금 도입으로 손에 쥘 수 있는 지원금이 절반 이하로 대폭 깎이게 된 것이다.

정부가 직불금의 상한선을 면적은 4ha(법인체는 10ha), 금액은 8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장려금은 이런 상한선 규정도 없었다.

불만이 커지자 전북도는 직불금과 별도로 조사료 1kg에 10원씩을 장려금으로 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4ha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충분한 보전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외벽 도색... 확 바뀐 남부시장

전주시가 최근 노후한 전통시장인 남부시장 건물 외벽에 도색공사를 실시해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시는 지난 8월 남부시장 천편주 치장 정비, 외벽 도색 등에 이어 다음달 아케이드 보수공사와 남부시장 1동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 제공)

단신

새누리 남경필 국회의원 전북 명예도민

새만금특별법(새특별) 개정 등에 큰 역할을 한 새누리당 남경필 국회의원(사신)이 전북의 명예도민이 됐다.

전북도는 21일 “국회에서 남 의원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3대 부수법안 대표 발의 등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다. 남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장으로서 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귀농귀촌협,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사)고창귀농귀촌협의회는 21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강수 군수와 박재환 군의회의장,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지난달 2013 대한민국 귀농귀

촌창업박람회에서 2년 연속 귀농귀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고창은 농가주택수 리미 및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재능기부, 귀농귀촌 우수마을 시상 등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남원 농특산물 엑스포’ 내달 5~6일 개최

남원시는 21일 “오는 12월5일부터 6일까지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허브를 가공해 만든 농가공품을 시민들과 유통관계자들에게 선보이는 ‘2013 남원 농특산물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에는 지역 농가공품업체 40여 곳이 참가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엑스포 행사를 통해 지역에 소재한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면서 농가공품 업체와 남원시민 간 상호이해를 돕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원=백선지기자 bs8787@

정읍시, 내년 예산 5776억 편성

정읍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5.7%(311억원)가 늘어난 5776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을 보면 자체 수입이 434억원으로 올해보다 11억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 2329억원, 국·도비 보조금 2078억원, 재정보전금 98억원, 보전수입 280억원 등이

다. 의존수입은 2013년보다 162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50억원이 감소한 4505억원 규모다.

사회복지분야가 1475억(28.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농업·농촌분야가 1055억(20.2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